

【대만, '14년 10월】 【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】

1. 관할 지역, 현장 이슈

□ 대만산 수산물 對중국 수출 2011년 대비 물량 3배 증가

- 대만산 수산물의 對 중국 수출이 ECFA 실시 이후인 2011년부터 점차 증가하여 전년도 '13년 까지 3배 물량으로 증가하였고, 금년 수출액도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
- '11년 수출실적이 25천여톤, USD141백만불에서 '13년 85천여톤, USD212백만불로 물량 240%, 금액 50%가 증가되었음
- 수산식품 對 중국 수출 증가요인은 수산 냉동식품 및 가공식품, 관상어 등이 수출되기 시작했기 때문임 (자료원 : 台灣新生報 '14. 11. 15.)

□ 2015년 흑다랑어 어획한도량 20% 증량으로 가격하락 예상

- 지난 11월 17일 ICCAT(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)는 금년 이탈리아 제노바 협상에서 2015년, 2016년 2년간 대서양 흑다랑어 어획한도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음
- '14년 1만 3,500톤에서 '15년 어획 제한 한도량은 1만 6,142톤으로 전년 대비 20% 증량 예정으로 국가별 배정율에 관해 유럽연맹국가 약 60%, 일본 8.3% 등으로 예상됨
- 어획 제한 한도량 증량으로 인해 명년 흑다랑어 가격이 세계적으로 하락 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 2016년 어획한도량도 1만 9,236톤으로 추가 확대키로 함 (자료원 : NewTalk '14. 11. 18)

□ '14년 대만 석반어 생산량 증가, 콩치 생산량 세계 1위 차지

- 대만 전국 어회는 석반어의 양식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금년 연간 생산 목표 실적인 NT\$76억(한화 약 2,660억원)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함
- 대만 석반어 양식 면적은 2,000여ha, 연간 생산량은 2만톤으로 금년 11월 76.1억(한화 약 2,660억원)을 조기 달성하였고, 태평양 해역에서 6월~11월까지 작업하는 콩치도 전년 18만 2천여톤을 달성한데 이어 금년 21만톤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음. 콩치 생산량은 전년도 이미 일본을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으며, 전년 대비 15% 증가율을 보임

- 대만 對 중국 석반어 수출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4,160톤(NT\$14억元)에서 '14년 10월 기준 15,316톤(NT\$50.2억元)으로 268%(259%)가 증가하였고, 꽁치 對 중국 수출량은 2009년 7,066톤(NT\$95.1백만元)에서 '14년 10월 기준 30,362톤(NT\$586백만元)으로 약 330%(516%)가 증가하였음 (자료원 : 全國漁會新聞稿 '14. 11. 16)

□ 「돌돔」 인공 양식 연구 성공

- 최근 대만 수산시험소는 평균시가 600g당 NT\$1,600元(한화 약 5~6만원)이상인 「돌돔」의 인공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함
- 대만 연간 돌돔 수입실적은 NT\$80억元으로 향후 인공양식 기술을 이용하여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등 수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특히 돌돔은 식용 외에도 관상용으로도 그 부가가치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 업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
- 돌돔은 원래 25도씨 이하 냉온수의 대만 남부, 북부, 동북부 10~100m에서 해양 수심에서만 서식하고 30도씨 이상인 해수에서는 서식이 불가하여 자연 돌돔만 소량 생산되고 있었음. 이번 실험은 해수 혼합, 온도조절 등 돌돔 양식 환경에 대해 1년간의 연구 끝에 돌돔 양식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함 (자료원 : 聯合新聞網 '14. 11. 19)

2. 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전망

□ 수입 동향

- '14년 1~9월말 기준 대만 수산물(가공식품 제외) 총 수입실적은 169,111톤, US\$591,016천불로 전년 동기 실적 164,267톤, US\$480,617천불 대비 물량 2.9% , 금액 23% 증가함. 그 중 한국산은 1,085톤, US\$3,988천불로 전년 동기 대비 물량 33.9%, 금액 7.8% 증가세를 보임
- '14년 1~9월말 기준(가공식품 제외) 수산물 수입실적 우선순위를 보자면, 중국산이 37,069톤(US\$85,618천불)로 22%로 차지하였고, 노르웨이산이 10,131톤(US\$83,248천불)으로 전체의 6%(14.1%), 베트남산이 21,718톤(US\$54,150천불)으로 12.8%(9.2%)을 각각 차지함
- '13년 1~12월 수산물 전체 수입실적 236,203톤, US\$719,205천불 기준 '14년 1~9월까지 수입실적은 약 71.6%(물량), 82.2%(금액)을 달성함
- 수산물 수입은 활어, 냉동, 건조, 훈제처리 등의 형태로 수입이 되며, 그 중 한국산은 냉동, 건조형태로 주로 수입됨

□ 품목별 수입동향 및 전망

<주요 수산물 및 수산식품 수입물량 통계>

(단위: 톤, US\$천불, %)

품목	'13	'14	전 년 대 비 (%)	1위		2위		3위		한국
	1~9월	1~9월		국가	물 량	국가	물 량	국가	물 량	물 량
	금 액	금 액			금 액		금 액		금 액	
바다 가재	408.6	816.7	98.8	쿠바	294.4	호주	101.4	인도	109.2	-
	6,430	14,019	118		6,159		2,136		1,260	-
오징어	11,679.5	6,395.6	△45.2	중국	1,594	인도네 시아	1,557	필리핀	1,272.9	52.8
	15,684	9,178	△41.5		2,694		1,975		1,543	106
굴	720.3	895.9	24.4	한국	387.7	일본	118	미국	282.6	387.7
	2,378	3,989	67.8		1,515		896		5,786	1,515
김	1,605.6	1,580.4	△1.6	중국	1,059.8	한국	298.2	태국	180.9	298.2
	24,458	24,107	△1.4		14,936		5,786		2,859	5,786
넙치	5,065.2	6,060.5	19.6	그린 란드	2,838.4	중국	1,594.8	캐나다	885.8	-
	27,478	35,837	30.4		170.66		7,383		5,893	-
고등어	3,572.6	2,935.9	△17.8	노르 웨이	1,059	영국	537.6	캐나다	447.9	-
	4,233	7,205	70		2,909		1,244		962	-
대구	1,718.6	1,578.8	△8.1	미국	1,478.4	뉴질랜 드	17.5	중국	58.6	-
	5,413	5,032	△7.0		4,747		80		77	-
전복	1,778.3	2,293	29	중국	2,119.5	멕시코	19.7	남아프 리카	98	-
	29,251	33,470	14		25,424		3,058		2,547	-
해삼	905.5	789	△12.9	파라 과이	133	그리스	206.2	온두라 스	151.4	-
	9,506	12,107	27		5,346		2,214		1,215	-
연어	470.3	623.3	32	칠레	219.9	노르웨 이	118.6	태국	85.2	-
	4,961	6,925	39.6		2,180		1,807		1,062	-
가리비	2,384.2	2,273.6	△4.6	일본	887.3	중국	1,249.3	페루	16	-
	17,916	16,474	△8		11,196		4,738		192	-
참 치	0.032	0.13	-	일본	0.13	-	-	-	-	-
	0	2	-		2	-	-	-	-	

* 자료원) 대만 재정부 관무서 <http://web.customs.gov.tw/mp.asp?mp=1>

* 순위는 수입금액 기준임

□ 타국산(관할지역 생산, 타국수입산) 경합품목 동향

○ 김

- '14년 1~9월 기준 김 및 홍조류 총 수입량은 1,580.4톤(US\$24,107천불)로, 그 중 중국산이 1,059.8톤(US\$14,936), 한국산이 298톤(US\$5,786) 태국산이 180톤(US\$2,859)이 수입되었고 전년 동기 대비 전체적으로 감소함
- 중국산의 수입형태는 신선·냉장 형태 및 건조형태로 수입되어지며, 한국산은 수입량 기준 건조형태가 55.8%·조미형태 35.4% 차지하며 수입액 기준으로 볼 때 건조형태 40.6%·조미형태 50.6%를 차지함. 기타 소량 신선, 냉장이 수입됨

○ 오징어

- '14년 1~9월 기준 냉동 및 신선 오징어 총 수입실적은 6,396톤(US\$9,178천불)로 전년 동기 대비 45.2%(41.5%)로 각각 대폭 감소되었음
- '13년 1~12월 기준 한국산 오징어는 총 40.2톤(US\$138천불)이 수입되었고, '14년 9월말 기준 52.8톤(US\$106천불)로 전년 대비 한국산 오징어 물량은 31.3%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△23.1%로 감소하였음
- 대만 내 수입되는 오징어는 대부분 미훈제, 냉동형태로 수입되며, 한국산 오징어도 미훈제, 냉동 오징어로 대부분 수입되어 중국산, 인도네시아, 필리핀산 등과 수입경쟁을 하고 있음

4. 동향 분석 【냉동 굴 시장 동향】

□ 관세율 및 수입세척코드(CCC Code)

CCC Code	품명	중문표기	영문표기	수입 관세율		
				제1군	제2군	제3군
03071020004	냉동 굴	冷凍牡蠣 (蠔、蚶)	Oysters, frozen	20% (한국 : 제1군에 속함)	6.3%(GT) 10.2%(HN) 10.7%(NI) 2.2%(PA) 10.2%(SV)	42.50%

* 자료원) 대만 재정부 관무서 <http://web.customs.gov.tw/mp.asp?mp=1>

* 중국산 제품은 수입금지 항목임

□ 수입동향

<냉동 굴 국가별 수입 현황>

(단위: 톤, US\$ 천불)

국가명	2012		2013		2014(1~9월)	
	물량	금액	국가명	물량	국가명	물량
일본	42	393	55.6	436	80.5	588
캐나다	26.8	40	2.6	4	-	-
미국	331.8	655	242.4	383	199.1	315
말레시아	119.1	125	108.1	127	42	56
베트남	26.2	21	74.8	78	-	-
호주	-	-	8.2	81	-	-
뉴질랜드	-	-	-	-	0.2	2
태국	-	-	-	-	7.4	12
한국	246	671	183	646	373.8	1,423
합계	2,803.9	1,905	2,687.7	1,755	2,717	2,396

* 자료원) 대만 재정부 관우서 <http://web.customs.gov.tw/mp.asp?mp=1>

- '14년 1~9월 기준 대부분 한국산이 전체의 13.8%(물량), 59.4%(금액)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고 미국산이 7.3%(물량), 13.1%(금액), 일본산이 3%(물량), 24.5%(금액)을 차지함
- '14년 1~9월 기준 냉동굴 수입가는 한국산이 KG당 US\$3.8불, 일본산이 US\$7.3불, 미국산이 US\$1.58불로 미국산이 비교적 저가로 수입되는 반면 일본산은 한국산의 2배 이상의 고가로 수입되어 짐
- '14년 1~9월 기준 한국산 냉동굴의 수입실적이 전년 대비 물량 104%. 금액 120% 증가함

□ 생산동향

- 매년 10개 대만 주요 시와 현에서 약 3만 톤(NT\$53억~62억 원) 내외의 물량이 양식 및 생산되고 있음
- 대만 중남부 지역인 운림현(雲林縣), 짜이현(嘉義縣), 찡화현(彰化縣), 타이난시(臺南市)에서 주로 양식되고 있음

<대만 굴 양식 생산 통계>

(단위: 톤, NT\$천원)

구분	2011		2012		2013	
	양식 물량	생산액	양식 물량	생산액	양식 물량	생산액
대만 굴	34,643	5,291,741	26,923	3,540,067	27,793	6,156,284

* 자료원) 대만 어업서 통계자료 <http://m.coa.gov.tw/outside/FisheriesStatisticalReport/View.aspx?ID=19>

□ 판매 및 유통 동향

-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산 냉동 굴은 대부분 일식, 뷔페 등 요식업소로 유통되며 대형할인매장, 슈퍼마켓 등에서는 수입산 냉동 굴 판매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움. 단, 사전 계약된 식당 및 일부 고급 매장과 직거래를 통해 판매되기도 함
- 신선 굴은 대만 중남부 연해안에 양식되는 굴이 유통되며, 신선 굴의 도매시장 월 평균 교역량은 40톤 이상임 (국내 일반 가정용 및 소매상에 주로 유통되는 것은 껍질이 벗겨진 대만산 신선굴이며, 냉동 굴은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통로가 적음)
- 일본산, 한국산, 미국산 최상급 냉동 굴은 껍질이 있는 채로 생식 및 구이용으로 판매되며, 껍질이 벗겨진 굴은 1kg 소포장 또는 벌크로 수입되어 해산물 식당 등에 계약된 금액에 따라 직접 판매됨
- 최근 2년간 한국 남부지방의 생굴 채취량 부족으로 대만 내 일본산보다 고가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동일 규격인 경우 일본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짐

			
<p>일본산 껍질 벗긴 굴 1kg / NT\$690 (인터넷, 소매)</p>	<p>한국산 껍질 벗긴 굴 1BOX(1KG*10개포장) NT\$300/kg(도매)</p>	<p>일본산 껍질 있는 굴 10~13CM NT\$30~45/개 (인터넷, 소매)</p>	<p>한국산 껍질 있는 굴 10~12CM NT\$27~35/개 (인터넷, 소매)</p>

- 2011년 6월 한국산 굴의 식중독 사건(노로 바이러스 등 식중독균 검출)으로 한국산 굴 수입에 제한이 있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

□ 향후 시장 전망

- 최근 2년 간 한국산 냉동 굴이 일본산보다 고가 판매되는 경우가 있는데, 동일 조건인 경우 일본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. 대만 시장 내 일본산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안정된 수입통로 구축을 위해서는 한국산의 일본산, 미국산 대비 우수성 및 차별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(현재까지는 중국산 냉동 굴은 수입금지 품목이므로 경쟁위협은 없음)
- 고급 한국산 굴과 일반 대만 요리용 굴 및 굴 가공식품 등 비교적 저가 상품의 동시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, 여러 가지 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
- 최근 대만 유류품 등 식품안전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 식품위생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, 2011년 굴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출 시 엄격한 관리 요망